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과거와 현재

다문화 사회

교육과 미래

대학교육이 달라지고 있다



이지현

영혼을 사로잡은 감동적인 강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지도교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대학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게...

대학의 과업을 흔히 진리창조, 학생교육, 사회봉사라고 말한다. 이 가운데 '학생교육'은 최근 대학의 중대한 과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활성화는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국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 학생 교육, 특히 신입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 개선 노력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타고 널리 퍼져 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직으로 대학교양 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를 들 수 있다.

교육방법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 교육을 위한 정책들이 특수한 방향으로 설정,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교양)고전, 수학·기초과학)교육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봉사 학습의 결합, 글쓰기를 포함한 핵심능력 강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 강화사업들이 학생들의 해외 파견, 지역사회 봉사 및 취업률 제고 등과 결합된 종합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고민을 가진 교수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개선 노력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교육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수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이라는 인식이 대학 내부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자격 택시기사 '활개' 시민은 불안하다

광주 시내에서 무자격 택시기사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여성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무자격·부적격 택시기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듯 하다. 광주지역에서 운행중인 법인택시는 현재 76개 회사에 3천506대에 이른다.

5천여명에 불과하다.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할 경우 2천여명 이상의 기사가 부족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 무자격 택시기사 단속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다. 따라서 무자격 기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나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쇄신 빠진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재타"이라며 "저와 정부는 삼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출발 90일도 안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몰린 현실이 안타깝다. 민심 이반은 심각하다.

이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본질을 외면했고 사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문제보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처리 촉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무엇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안이 빠진 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 헌신의 책임을 '제 탓'이라고 떠안으며 야당은 물론 여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정 헌신은 정부의 총체적 잘못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에게 근본책임이 있는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병희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는 무서운 질병인데 틀림이 없다.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바이러스 감염 질환에다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전쟁 등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는 앞으로 어떤 환경적 변화와 신종 질환들이 생겨날까? 몇 십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릴 수도 있을 테고, 기억 지면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시절 의사로서 만난 단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걸어와다가 단 몇 시간 만에

작고 허리가 굽은 채로 뒤뚱거리며 걷는 아이들이 많았다. 삼척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파상풍, 잘 치료되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을 수 있는 세균성 수막염, B형 간염도 참 많았던 것 같다.

다행히 최근에는 의·과학기술과 치료제의 발전, 예방접종의 힘으로 결핵을 심하게 앓는 아이는 보기 힘들어졌다. 감상선 호르몬제하중도 조기발견 치료와 있고, 파상풍과 세균성 뇌수막염 등도 예방접종으로 발병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종 직업이 생겨듯 소아청소년들의 질환도 감염성 질환 위주에서 환경성 질환 위주로 바뀌고 있다.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어졌다. 겨울이면 콧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코막이 시커멓게 변한 아이, 수건을 가슴에 차고 다니는 아이가 병원을 찾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결모습이 바뀌었을 뿐 아직도 감기는 소아청소년과의 단골 질환이다.

이것도 Hopeless(회생불능) 선언한 뒤 영안실 앞에서 우는 아이 부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 뒤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른채 지낸다. 또 결핵 사실을 알아도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치료를 게을리하고 그로 인해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 치료도 잘 안된다고 한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기고

최정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은 사람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신은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후의 5분밖에 없다면,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형수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형집행 직전에 목숨을 구했지만, 사형대에 서 느꼈던 5분의 소중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인생을 5분의 연속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한다.

소방관들은 누구보다도 5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평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펌프 앞의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로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로 꼭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병에 든 물은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이런 펌프의 물을 품을 때 없어서는 안될 불쏘시개 같은 존재다.

“펌프 앞의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로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로 꼭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소생확률이 50%, 5분 이내에 실시하면 소생확률이 25%이므로, 5분이 경과되면 소생확률이 희박하고 소생하더라도 뇌손상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방관의 5분은 화재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며, 심장정지 환자처럼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급박한 시간에 비유되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누구보다도 5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평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비단 소방관에서만 실시하는 일방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방관들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5분을 지켜주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방관들이 5분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펌프 앞의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로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로 꼭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새롭게 되새기는 '5분'의 의미

어떤 이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의미 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연인과 커피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불이 난 지 5분쯤 지나면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는데 발화온도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폭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다.

“플래쉬 오버(Flash Over)”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소방관과 화재조사관이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다.

“펌프 앞의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로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로 꼭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美 아마즈나 사막에서 기초질서를 배운다

햇볕 따가운 미국 아마즈나 사막 한복판의 조그만 길가에는 우리나라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물 펌프가 하나 있다고 한다.

“펌프 앞의 바위 곁을 파헤치면 큰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펌프로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로 꼭꼭 막고 처음 있던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펌프의 물을 품을 때 없어서는 안될 불쏘시개 같은 존재다. 만약 누군가 미리 준비돼 있는 그 마중물을 사용해 실컷 물을 퍼 마신 다음 귀찮아서 그냥 가버린다면 그 뒤에는 그녀는 누구도 펌프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이 아마즈나 사막의 펌프 이야기는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질서의 소중함과 경의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일화다.

▲이인자·광주시 남구 백운2동

無等鼓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과는 미국산 최고기 수입 개방으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불과 87일 만이다.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내각'에 이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몇몇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미국산 최고기 수입 개방 대목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사과를 해야 했다.

조선시대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임금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은 심한 가뭄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자 18일간이나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사 등 기상이변도 군주가 부덕한 소치로 보고 왕들은 조심했다. 황사현

상을 왕의 덕이 부족해 하늘이 경고와 징벌을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황사가 나타나면 왕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삼가는 등 몸가짐을 바로했다.

미군산 최고기 수입 개방 대목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사과를 해야 했다.

취임 100일도 안된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야 할 만큼 국정이 꼬여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겸하여 자제를 삼한 가뭄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자 18일간이나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사 등 기상이변도 군주가 부덕한 소치로 보고 왕들은 조심했다. 황사현

황사 등 기상이변도 군주가 부덕한 소치로 보고 왕들은 조심했다. 황사현

사과와 수용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